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27호 [투게 제24540호] 주제 103(2014)년 5월 7일 (수요일)

당의 경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 사설

# 기자, 언론인들은 혁명적인 사상공세의 기수, 나팔수가 되자

오늘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불후의 고전적저작 《우리 당출판보도물들은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애 이바지하는 위력한 사상적무기이다》를 발표하신 40년이 되는 날이다.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를 계기로 온 나라에 사상전, 선전전동의 원바람이 세계에 일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맞이하는 것으로 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로작발표 40년의 역사적의의는 더욱더 부각되고있다.

지금 출판보도부문의 모든 일군들과 기자, 언론인들은 총대와 함께 북대를 중시하시라 우리 당출판보도물건설의 새 역사를 펼쳐서 오고 혁명적기여를 아끼지 않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뜨겁게 돌이켜보고있다.

사상중시, 북대중시는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높이 주체혁명위업, 강성국가건설위업을 향도해나가는 우리 당의 일관한 정책임을 확고한 의지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거창한 투쟁이 벌어지는 약동하는 시대에는 그 시대를 앞장에서 선도해나갈 힘있고 전투적인 북대가 있어야 합니다.》

혁명은 사상의 힘으로 전진하며 사상의 위력은 북대에 의하여 담보된다. 인민대중을 사상적으로 각성시키고 영웅적투쟁으로 고무추동하는데서 북대가 노는 선구자적역할과 무궁무진한 위력은 우리 혁명실현에서 뚜렷이 확증되었다.

지금으로부터 40년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우리 당의 최고강령으로 선포하시는데 이어 력사적인 5월 7일로작을 발표하시는데는 우리 당출판보도물건설사에 특기할 사변이였다.

사상리론의 영재이시며 주체인론의 거장이신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높이 모시어 우리 당출판보도물들은 그 면모를 근본적으로 일신하고 혁명의 년대들마다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오수 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밝혀주신 김일성주의출판보도물의 사명과 근본원리, 기본입문은 우리 기자, 언론인들의 사명과 생활의 고귀한 지침이였으며 장군님의 세련된 령도는 출판보도사업에서 일대 혁신이 일어나게 한 원동력이였다. 반체제결정에서의 빛나는 승리, 사회주의 건설에서의 끊임없는 앙양과 세기적변혁으로 수놓인 지난 40년 력사의 갈피마다에는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밑에 주체의 사상론을 앞장에서 구현해는 우리 당출판보도물들의 공적기 력력히 새겨져있다. 준엄한 선군혁명

의 폭풍우를 진두에서 헤치시며 초강대국까지 도강행군길을 이어가시는 속에서도 우리의 주체인론이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와 위업을 선도해나가는 사상적기수, 진격의 나팔수로서의 역할을 다해나가도록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시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로작을 우리는 영원히 잊을수 없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령도밑에 주체인론의 혁명적정성을 세기를 이어 굳건히 고수하고 빛내여온것은 우리 당출판보도물들의 크나큰 영광이다.

우리의 출판보도물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간하신 주체형의 출판보도물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1970년에 당보 《로동신문》에 사설혁명의 봉화를 지펴주시고 출판보도사업전반에서 일대 혁명이 일어나도록 정력적으로 이끄셨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당출판보도물들을 수령의 위업실현을 향도해나가는 우리 당의 일관한 정책임을 확고한 의지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에 의하여 우리의 출판보도물들은 전당과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로 일체화하는 역사적전진속에서 수령우위의 북대와 마이크로 수령의 위업을 충직하게 받드는 주체형의 출판보도물로서의 체모를 더욱 뚜렷이 갖추게 되었다. 신문은 비롯한 정기간행물들로부터 도서에 이르기까지 모든 지면들에 수령의 사상리론이 맥박치게 하신대로 위대한 장군님이시며 나라의 방방곡곡은 물론 온 세계에 로동당의 목소리가 힘차게 퍼져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끄신대로 우리의 장군님이시다.

수령의 사상과 위업실현을 필생의 사명으로 내세우신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령도는 우리 당출판보도물들의 생명선이기도 할 력소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끄셨고것이 사회주의공화국의 세계적인 대정치공화국에서 수도 우리 당출판보도물들의 혁명적정성은 추호의 흔들림도 없었으며 당의 혁명위업수행에서 훌륭한 교양자, 대담한 선전자, 충실한 대변자로서 주체사상, 선군사상이 안고있는 진리의 힘을 온 나라에 힘있게 펼쳐오수 있었다. 우리 당출판보도물이 새로운 주체 100년대에 도자주적대, 정형적대대를 확고히 세우고 백두의 대업실현을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담보해나가고있는것은 어버이장군님의 주체적출판보도사상과 령도업적의 위대성에 대한 뚜렷한 과시로 된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령도밑에 사상전의 불길드높이 시대와 혁명발전, 부강조국

건설을 힘있게 추동해온것은 우리 당출판보도물들의 더없는 공적이다.

백두밀밭에서 시원이 열리고 그 빛나는 력사와 전통이 마련된 북대로, 글대포의 위력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끄시는 시대에 최대로 발휘되었다. 출판보도부문에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는 이 세상 그 어느 곳에도 따를수 없는 비범한 예지와 선견지명, 과학성과 심오성, 무한대의 정력으로 빛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밑에 1970년대에 출판보도사업이 항일유격대식으로 확고히 전환됨으로써 이 땅우에는 천만군민의 정신력을 폭발시키는 혁명의 북소리가 높이 울려 퍼지고 세인을 놀래우는 거창한 변혁과 기적이 연이어 일어나게 되었다. 정치선전과 경제선전을 밀접히 결합한 당보사설의 연속성과 화, 집중포화는 온 나라에 백두의 혁명정신이 나뉠치게 하였으며 여러 신문들과 통신, 방송의 참신하고 격동적인 화신식보도선전활동은 우리 조국이 속도전의 기상으로 질풍같이 내달리게 하였다.

우리 당출판보도물의 위력은 선군혁명의 폭풍우속에서 비상히 강화되었다. 력사에 류례없는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엄혹한 시련의 시기에 우리 혁명의 명맥이 끊기지 않고 그 어디에서나 사회주의본태가 힘있게 살아 맥박칠수 있는것은 우리 당출판보도물의 전투적역할과 때때로 사고생각할수 없다. 온 나라에 혁명적군인정신이 나뉠치게 된것은 우리 보도선전활동이 활활히 벌어지는 속에 군인정치가 확고히 실현되게 되었으며 강경정신이 왕조지도 성강의 봉화가 되게 하여 우리 당출판보도물들의 튼튼한 도약대가 마련되게 되었다. 사상중시, 북대중시의 독창적인 정치로 천만군민의 정신력을 활화산처럼 분출시켜 김일성민족의 100년사를 거창한 찬양과 위대한 승리로 빛내이신 김정일동지의 성스러운 혁명실록은 선군조신의 새로운 번영기를 열어나가는 오늘에 걸맞은 대진군과 더불어 찬란한 빛을 뿌릴것이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손길에 우리의 모든 기자, 언론인들은 당의 영원한 동행자로 언제나 자라나고 되었다.

우리 기자, 언론인들끼리 있어서 위대한 장군님에 친근한 스승, 자제로써 어버이이시려고. 당의 의도대로 글을 쓰는 사람들은 영웅이라고 하시며 기자, 언론인들의 사고관점과 활동원칙, 창작기풍으로부터 사업조건, 생활조건에 이르기까지 마음쓰신 위대한 장군님의 로고는 이류 다 해일없이 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각별한 사랑은 밤이 지새도

묵 몇번이고 보고 또 보시면서 지도해주시는 수많은 기사, 편집물들에도 어려웠고 문필전사들을 자신과 뜻과 정을 같이하는 선군혁명동지로 굳게 믿으시고 최고사령부의 중군길에 세워주신 절실같은 이야기들에도 새겨져 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활동같은 믿음과 유권적지조를 우리 기자, 언론인들을 참된 혁명가로 키운 자양분이었고 비상한 창작적배짱과 지필줄 모르는 열정의 원천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위어주시신 북대와 마이크로 총대처럼 역세에 들어귀고 당의 위업을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 우리 기자, 언론인들의 심장속에 장군님은 언제나 태양으로 영생하고계신다. 앞서놓아도 뒤쳐놓아도 한도 없고 단두대우에서도 단진 맹세 변치 않을 혁명적지조를 굳게 간직할 열혈충신들이 바로 위대한 장군님의 슬하에서 자라난 우리 기자, 언론인들이다. 위대한 장군님과 맺은 정을 괴물처럼 간직하고 새로운 주체 100년대진군에서 김정일동지의 전사, 제자로서의 혁명적본분을 다해나가려는 우리 기자, 언론인들의 신념은 확고부동하다.

우리 당출판보도물은 철두철미 수령의 사상과 위업실현에 복무하는 사상적무기이다.

오늘 우리 기자, 언론인들앞에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힘있게 추동하며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야 할 책임적이고도 중대한 과업이 나서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백두산절세위인들이 북대중시사상과 정치를 드림없이 계승하며 주체의 사상론의 기치높이 사회주의수호전과 강성국가건설위업을 빛나는 승리로 이끄시는 대세의 걸출한 령도자이다.

우리 당은 전당과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는 성스러운 위업수행에서 사상일군들을 기수로 내세우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에서 하신 강령적선언에는 사상의 힘으로 개척되고 전진해는 우리 혁명위업을 사상의 힘으로 끝까지 완성하시려는 철석같은 신념과 의지가 빛날것이다.

혁명의인 사상공포로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는 력사적전진의 전열에 기자, 언론인들이 서시었다.

우리의 전체 기자, 언론인들은 주체의 필봉을 영예하게 들어귀고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을 온 나라에 펼치기 위한 오늘의 총진군에서 당의 참된 동지, 문필전사로서의 본분을 다해나가자 한다.

모든 당출판보도물은 온 사회에

김일성-김정일주의를 힘있게 뽐어주는 선도자, 나팔수가 되어야 한다.

전체 기자, 언론인들은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을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사상과 업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한 위대성교양을 첫차리에 놓고 출판보도활동을 전개해나가야 한다. 위대한 김정일-김정일주의에 기초한 전당과 온 사회의 사상적일체화를 철저히 실현하는것을 당의 유일적경도체계확립을 위한 투쟁의 종자로 들어귀고 혁명전투교양, 신념교양에 이바지하는 참신하고 실효성이 강한 글들을 팽방 써내야 한다. 《김일성전집》, 《김정일전집》을 비롯하여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혁명사상과 불멸의 업적을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는 혁명도서들을 더 많이 편찬발행하며 우리의 모든 신문과 통신, 방송들에 매일, 매 순간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상과 의도가 힘있게 맥박치게 하여야 한다.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투쟁으로 천만군민을 총원기시키는 보도선전을 공세적으로, 화신식으로 전개해나가야 한다.

오늘의 사상공세는 전체 군대와 인민의 정신력을 최대로 폭발시켜 반체군사전선만이 아닌 경제와 문화를 비롯한 우리의 투쟁과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제국주의를 결격적으로 압도하고 우리 식 사회주의의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일대 선전선동전이다.

당보를 비롯한 출판보도물들에서는 당의 일방적인 방편으로 정치사상선전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여기에 경제선전을 밀접히 결합하여 선군조선의 번영기를 열어가기 위한 투쟁으로 전체 인민을 고무추동하여야 한다. 설득력과 호소성이 강한 다양한 기사, 편집물들로 지면을 꽉 채워 온 나라에 백두의 혁명정신, 최첨단들과 불길기 새겨쳐 나뉠치게 하여 새로운 조선속도를 창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펴나가야 한다. 우리 당의 경제개발, 사회주의문명구축건설사상과 의도를 적극 해설선전하며 사회주의수호전지 벌어지는 모든 전선, 모든 초소에서 창조되는 귀중한 성과와 경험을 널리 일반화하여야 한다. 이 땅 그 어디에서나 집단지적영웅이 휘몰아치도록 하는데서도 사회주의인론의 위력이 남김없이 파시되게 하여야 한다.

사회주의를 기어이 말살하려는 제국주의 반동세력을 드세한 언론공포로 타도하는것은 김일성-김정일주의출판보도물의 중대한 임무이며 절박한 시대적요구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에서 하신 력사적인 선언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는 필승의 신심을

주고 원수들에게는 철추를 내리는 사상의 미싸일, 글폭탄들을 더 많이 만들어벌레 대한 전투적과업을 제시하시었다. 신문, 통신, 방송, 출판부문의 모든 일군들과 기자, 언론인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가르치심을 심장으로 받들고 사상전의 포문을 일체화하여 그 기세를 조급도 늦추지 말고 불꽃같은 집필창작 전투를 벌려나가야 한다. 대적인론전, 전과전을 단수높게 벌리고 집중포화, 연속포화, 명중포화를 들어대어 정의로운 우리의 사상과 위업의 불멸성을 내외에 널리 선전하며 제국주의의 위약성과 추악한 정체를 날같이 발가벗기어 한다. 국가폭력투쟁은 물론 인터넷을 통한 보도선전활동에서 전략을 바르게 세우고 력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혁명적이며 고상한 우리 사상과 문화의 압도적승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출판보도부문의 일군들과 기자, 언론인들은 당의 위업을 무한히 충실하고 인민의 사랑을 받는 김정은시대의 항일유격대나팔수가 되어야 한다.

모든 기자, 언론인들은 언제 어디서나 오직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상과 뜻으로 살아야 하며 원수님의 강령정신, 공적정신으로 명작창작전투를 드세차게 벌려나가야 한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과 믿음을 인생의 영광으로 여기고 이 세상 끝까지 원수님을 따를 철석같은 신념을 간직하여야 한다. 결모양은 소박하고 수수해도 승리의 고통은 언제나 당의 뜻으로 녹이고 온몸이 혁명열, 투쟁열로 불타는 사상적기수, 당의 목소리를 제 때에 알려주기 위해 하루밤에도 수미필필을 걷는 정열가가 되어야 한다. 오늘의 격동적인 시대를 선도해나갈수 있는 높은 자질과 능력을 소유하기 위한 실력전의 원바람을 일으켜나가야 한다.

출판보도부문의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기자, 언론인들에 대한 사상양성교육을 신속히 계 계고하며 그들이 자기의 사명과 본분을 다해나가도록 잘 이끌어주어야 한다. 우리 당이 귀중히 여기고 아끼는 기자, 편집원, 방송원들이 당의 사상과 령도를 받드는 언론활동에 전심전력하여 실적을 높일수 있도록 사업조건, 생활조건보장을 깊은 정성을 기울여야 한다.

사상선전, 언론선전이 틀림없는것만큼 대중의 정성적이며 말살하려는 제국주의 반동세력을 드세한 언론공포로 타도하는것은 김일성-김정일주의출판보도물의 중대한 임무이며 절박한 시대적요구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에서 하신 력사적인 선언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는 필승의 신심을

##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 중국 현대국제관계연구원에서 선물을 보내어왔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중국 현대국제관계연구원에서 선물을 보내어왔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보내어온 선물을 부원장이 6일 해당 부문 일군에게 전달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중국 현대국제관계연구원 대표단 단장인 부몽자

본사기자

##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 소식을 4월 28일부터 30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중국로동당은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새로 건설한 김일성혁명박물관을 로동자합숙을 돌아보시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합숙을 바라 보시며 정말 멋있다고, 180여일이라

는 짧은 기간에 로동당시대의 또 하나의 자랑찬 창조물이 일떠서었다고 대담축을 표시하시었다. 중국의 홍콩 《대포보》, 홍콩 봉황 위성TV방송, 국제방송도 같은 소식을 보도하였다. 인도네시아의 버리다 씨푸TV방송, 비바뉴스통신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조선

인민군창건 82돐에 즈음하여 서남해상의 주요제대상륙작전기록을 발표하고있는 장거리포병부대 포사격훈련을 지도하시는데 대하여 전하였다. 나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에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1차 비명사태회를 지도하시고 대회참가자들을 위한 모란분야단의 축하공연을 관람하시였으며 대회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신 소식을, 준공을 앞둔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와 조업을 앞둔 조선인민군 1월 8일수산사업소를 돌아보신 소식, 오중훈7면대청호를 수여받은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방항공군 제188군부대의 비행훈련을 지도하신 소식을 올렸다.

본사기자

##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래양상을 형상한 모자이크벽화를 평안북도의 여러 군들에 모시었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래양상을 형상한 모자이크벽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를 합쳐 우리와 함께 계신다》가 박천군, 남변군, 삭주군, 영주군, 신도군에 모셔졌다.

나리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한평생을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어버이장군님께서는 현직 박천군이 나아가길 길을 활히 밝혀주시고 정력적인 령도로 모든 부문에서 전진이 일어나게 하시었다. 우리 인민들은 더 잘살게 하시려고 크나큰 로고와 심혈을 바치시므로 전진시켜주시였으며 뒤떨어진던 고장을 살기 좋은 인민의 탁발명의 령도업적은 남변군에도 아로

로고는 신도군에도 깃들여있다. 불세출의 위인들을 영원히 높이 받들어모실 일념으로 해당 군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어버이장군님의 래양상을 모자이크벽화로 모시는 사업에 뜨거운 지성을 바치였다.

여러 단위에 모자이크벽화들을 모신것은 백두산절세위인들을 주체의 래양으로 친세만세 높이 받들어모시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선군혁명위업을 끝까지 계승완성해나가려는 우리 인민의 뜨겁고 불타는 신념과 의지의 발현으로 된다. 모자이크벽화준공식이 해당 단위들에서 진행되었다. 【조선중앙통신】

## 전반적생산공정의 현대화 추진 단 천 제련소에서

나라의 위력한 유색금속생산기지인 단천제련소가 현대화공사로 뛰어내리고있다. 지난해에 산화아연생산공정이 일떠선데 이어 연생산공정, 유리섬유수지생산공정건설과 조액직장 2단계현대화공사 등이 본격적으로 벌어지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점진적공업기술에 기초하여 공장, 기업소들의 현대화를 적극적으로 밀고나가야 합니다.》 제련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현대적인 생산공정들을 새로 일떠세우며 조액직장 2단계현대화공사를 다그쳐 끝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밀고나가고있다. 합정남도당위원회와 단천지구 평안공 당위원회는 지도밑에 제련소의 편관단위의 당, 행정, 기술일군들은 대중중재가 깊어 들어가 화신식건설사업을 참신하게 진행하면서 일한을 통이 크게

벌려나가고있다. 현대화공사지휘부의 일군들은 로력조직과 자재보장, 시공조직을 면밀하게 짜고들면서 전투작전과 지휘를 메기있게 해나가고있다. 단천지구평업총국아래 유색금속설계연구소와 단천제련소 설계연구소의 일군들과 설계원들은 현장에서 설계전투를 벌려 방대한 설계도면을 앞질러보장하는 위업을 창조해나가고 있다.

단천제련소와 설비조립연합기업소, 단천평업연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서로의 힘과 지혜를 합쳐가며 현대화공사를 본태있게 내밀고있다. 연생산공정, 유리섬유수지생산공정건축공사 등이 본격적으로 벌어지고 설비, 장치물제작과 설치작업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단천제련소의 청년들격대원들과 건설 1, 2직장, 제관직장, 은직장, 산성조액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단천평업건설연합기업소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과 함께

해주련결농기계공장에서 수백대의 영양모내기를 생산하기 위한 힘찬 투쟁을 벌리고 있다.

낮과 밤이 따로없는 긴장한 전투를 벌려 짧은 기간에 100대의 영양모내기를 생산한 공장의 로동자들은 그 기세를 늦추지 않고 치열한 생산전투를 벌리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동촌에 현대적인 여러가지 농기계를 많이 생산하여 보내주는것과 함께, 그 리용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세우도록 하여야 합니다.》

영양모내기는 기계는 영양상모를 포전에 낚는 기계이다. 깨끗형태의 영양상모를 눈에 맞추어야 하는것만큼 모내는기계는 앞부분은 종전과 같지만 뒤부분은 모합을 대신하여 경사진 모공급판과 모누름대를 새로 설치하였으며 이송장치와 모공급판의 좌우이동을 보장하는 장치가 종전의 기계와 다르다.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본격적인 모내기 시작되기 전까지 멀거진 영양모내기 기계생산과제를 무조건 수행하기

## 영양모내기계생산성과 확대 해주련결농기계공장에서

위한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공장에서는 작업능률을 높일수 있게 생산공정을 합리적으로 꾸리고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영양모내기계의 생산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정밀, 부서벌, 기계공법사회주의경쟁을 조직하여 생산자대중의 열의를 더욱 높여주었다.

혁신의 불길은 생산의 첫 공정을 맡은 소재, 주물직장들에서 세계에 타르르르였다. 이곳 종업원들은 교대교대를 돕는 집단주의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단조품과 주물품생산에서 현일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이 힘있게 벌어지는 가운데 정제근동무는 모합을 대신하여 경사진 모공급판과 모누름대를 새로 설치하였으며 이송장치와 모공급판의 좌우이동을 보장하는 장치가 종전의 기계와 다르다.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본격적인 모내기 시작되기 전까지 멀거진 영양모내기 기계생산과제를 무조건 수행하기

회보다 3배이상의 부속품을 생산하는 성과를 거두고있다. 한성화학무는 라선속가공기구를 받아들이며 부속품가공속도를 종전에 비해 거의 4배나 높였으며 황명철동무도 수

심건의 지구장비를 창안 도입하여 부속품의 가공속도와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하고있다. 제관직장의 로동자들이 제관물생산과 용접작업에서 전태없이 혁신을 일으키고있을 때 조



# 우리 당출판보도물과 더불어 영원히 빛날 불멸의 업적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고전적로작 《우리 당출판보도물은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에 이바지하는 위력한 사상적무기이다》 발표 40 퉁에 즈음하여

### 절세의 위인을 높이 모시여 굳건한 붓대

경애하는 김정일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에서 하신 력사적인 연설을 심장에 새기고 붓과 마이코를 총대마냥 어깨에 틀어넣고 선군조선의 기자, 언론인들이 높이 울려가는데 붓대의 포성이 강성국가건설전투장들에 승리의 진군가로 메아리치고있다.

이 자랑한 현실을 두고 사람들은 일찌기 붓대중시사상을 제시하시고 정력적인 령도자 우리 당출판보도물을 주체혁명위업수행에 참담게 이바지하는 위력한 사상적무기로 강화발전시키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더욱 절감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력사적인순수에서 우리 당출판보도물은 주체혁명의 출판보도물로서의 면모를 더욱 뚜렷이 갖추었으며 당의 사상과 령도를 실현하는데서 훌륭한 교양자, 대담한 선전자, 충실한 대변자로 되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력사적인 5월 7일 로작을 발표하시던 때로부터 어느덧 세월은 흘러 40년.

그 날은 주체적출판보도물이 틀어쥐고나갈 불멸의 대강을 마련하시여 우리 혁명위업수행의 고귀한 지침을 밝혀주시고 우리 당과 인민을 투쟁과 전진, 승리와 번영으로 이끄신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령도와 불멸의 업적으로 빛나고 있다.

당의 령도밑에 혁명과 건설에서 눈부신 전진이 이룩된 1970년대의 나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불멸의 로작 《우리 당출판보도물은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에 이바지하는 위력한 사상적무기이다》를 발표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로작에서 우리 당출판보도물의 성격과 기본사명을 천명하시고 주체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삼고 당의 령도체계를 튼튼히 세우며 중자를 바로 두고 속도전을 힘있게 벌리는것을 출판보도

활동의 근본원칙으로 제시하시였다. 그리고 신문혁명, 보도혁명, 출판혁명을 일으켜 출판보도선전에서 혁명적전환을 이룩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로작은 우리 당출판보도물을 비약적으로 그 위력으로 투쟁과 전진, 승리의 력사를 영원히 빛내이시려는 그이의 열렬한 의지의 고귀한 결정체이다.

오늘도 로작의 자자구구를 되새길수록 우리 당출판보도물이 자기의 력사적사명과 임무를 다하도록 정력적으로 이끄신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의 자욱이 빛발쳐온다.

온 나라의 일들을 돌보시는 바쁘신 속에서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출판보도사업에 깊은 관심을 두리시였다. 특히 출판보도선전에서 당과 수령의 위대성전진을 주선으로 확고히 틀어쥐고나가도록 이끄시여 우리 당출판보도물이 혁명적정격을 확고히 고수하고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완수해나갈수 있도록 하시였다.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10차전원회의가 진행되던 그즈음에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긴장한 나날을 보내시였다. 낮에는 회의에 참가하시고 밤에는 또 다음날회의준비를 지도하시며 수많은 문헌들을 검토하시며 그리고 이께서는 분초를 쫓고하시며 헌신하시였다. 쫓겨온 시간을 내지 않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본실초조지를 전회의장까지 가지고 가시기에 보아주시였고 그러시고도 시간이 모자라 잠실시간까지 사시여 완성시켜주시였다. 이때만이 아니라.

위대한 장군님께서 당제6차대회를 준비하시던 나날에도 이른 새벽부터 점심시간이 지나도록 여러 대상들을 지도하시고 저녁에는 조선중앙통신사를 찾으신여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으며 당대회때에는 대회장에서까지 통신보도와 관련한 지도를 주신 하시였다. 우리 당출판보도물역사에 혁명적 새겨져있다.

신문혁명, 보도혁명, 방송혁명,

출판혁명의 불길속에서 우리 당출판보도물이 수령의 위대성전진을 주선으로 확고히 틀어쥐고나가는것으로 판공되고 기성의 판공과 남은 틀에서 벗어나 우리 식의 새롭고 참신한 방법과 활동방식이 확립된 그 모든 전진의 기초에는 위대한 장군님의 주체적출판보도사상과 정력적인 령도가 놓여있다.

세기와 세기를 이어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붓대중시사상과 정력으로 우리 당의 출판보도물의 위력을 비약히 강화하시고 강성국가건설전투장에 붓대의 포성을 높이 울려가도록 하시였다.

그 나날 자신께서는 언제나 붓대를 중시한다고 하시며 우리 기자, 편집원들을 글쓰는 친구들이라고 믿고 그 정을 담아 불러주시며 영광의 단상에서 높이 세우시신 진실같은 사랑과 믿음의 화폭들은 우리 장군님의 열렬한 사랑의 세계를 뜨겁게 전하고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당보의 한 문헌이 쓴 정론을 보아주시고 정론이 정말 힘이 있다고, 최고결작이라고, 멋진만의 식량과 맛있는 위력한 글이라고 두고두고 치하시며 그에게 주실수 있는 온갖 사랑과 응원을 다 배어주시신 이야기는 오늘도 문필가들에게 안겨주시신 사랑과 믿음의 전설로 전해지고있다.

그 무엇보다도 생각나는 생각이면 문필가들을 생각하시며 쉬임없이 헤치시는 전진길, 현지지도의 길에서 또 글감과 중자를 찾아주시고 미흡한 글들을 건건이 보아주시며 친히 수정가필해주시는 아버이장군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이 땅의 문필가들과 인민들을 영원히 잊을수 없다.

언젠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당보에서 사설혁명을 일으키던 때를 추억하시며 아버이수령님께서 해방직후에 당보기자들은 당의 이 목구비라고 하시면서 당은 기자들을 통하여 당의 목소리를 대중에게 전달하며 기자들을 통하여 대중의 목소리를 듣는다고 교시하시

었다고, 수령님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당보기자들의 임무와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뜻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그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당의 의도를 옮겨 반영한 글은 단순히 글재주에 의하여 나오는것이 아니라 당과 수령에게 충실한 기자의 끊임없는 사색과 탐구, 피타는 노력의 산물이라고, 그렇기때문에 글을 잘 쓰는 사람을 영웅이라고 하는것이라고 사랑과 정을 담아 말씀하시였다.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선언하시였다.

언론인들을 사상과 뜻을 같이 하는 혁명동지로 굳게 믿고 그 어떤 준엄한 시련과 난관도 함께 헤쳐나가는 우리 당의 립장은 앞으로 변함이 없을것이다!

진정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과 현명한 령도가 있었기에 우리 기자, 언론인들은 신념의 붓대, 애국의 붓대를 역사에 틀어쥐고 우리 당을 붓대로 결사옹위하며 내 나라, 내 조국의 강성변명을 위한 문필가 활동을 힘있게 벌여오셨다.

지나온 력사는 위대한 장군님의 붓대중시사상과 령도가 빛나게 구현되어 출판보도선전에서 혁명적전환이 일어났으며 혁명의 천하에서는 한이 없었던것이 천백배로 다져지고 강성국가건설에서 기적적성과들이 이룩된 승리와 영광의 년대로 빛나고있다.

훌륭한 교양자, 대담한 선전자, 충실한 대변자!

바로 이것이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아래 더욱 강화발전된 우리 당출판보도물의 참모습이다.

오늘 우리 당출판보도물은 또 한번의 위대한 승진이 있을때는 김정일원수님의 령도아래 자기 발전의 최전성기를 펼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일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에서 하신 력사적인 연설 《혁명적인 사상적무기로 중자를 앞당겨나가자》의 구절구절이 천만의 심장마다

에 거세찬 불길을 지펴올리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연설에서 출판보도선전에서 당의 유일정령도 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사상일군들의 사상관념과 사업방법, 일선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올데 대하여서도 정책적대과 뚜렷하고 철학적이기 있는 기사와 편집물들을 더 많이 창작하기 위한 근본설치도, 당정책을 대중이 스스로 공감하고 자기의것으로 받아들이실수 있게 논리정연하고 설득력있게 해설선전하기 위한 방도도 다 밝혀주시였다.

사상일군들은 우리의 사상과 위업의 정당성을 널리 선전하고 제국주의자들의 위약성과 추악한 정체를 날날이 발가놓는 단수높은 대적연론 선, 전과전으로 적들의 기를 꺾어놓아야 한다고 하시며 원수님들에게는 철추를 내리고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는 필승의 신심을 주는 사상의 미싸일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야 한다고 하시며 경애하는 원수님의 가르치심을 만사람의 심금을 세차게 격동시키시고있다.

혁명적인 사상공세로 최후승리를 앞당겨주고 고귀한 지침을 밝혀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르며 우리 당의 붓대전사들과 인민들은 또 한번의 결승한 위업을 높이 모신 크나큰 영광과 환희를 베풀게 될것이다.

천출 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원수님께서 계시여 우리 당의 불대는 굳건하다!

바로 이것이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정력적으로 이끄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원수님을 우러르며 경애하는 원수님들이 다스리실수 있는 다진 역량의 신념이다.

그렇다.

타월한 정치가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원수님께서 계시고 그이의 정력적인 령도가 있어 선군조선의 붓대는 굳건하며 우리의 정치사상적 지는 금성철벽이다.

본사기자 김인선

### 훌륭한 교양자, 대담한 선전자, 충실한 대변자

로동신문사주재에는 푸른 나무를 배개로 위대한 장군님의 친필비가 정중히 세워져 있다.

친필비에는 당의 혁명위업수행에서 로동신문은 항상 훌륭한 교양자, 대담한 선전자, 충실한 대변자로서 당중앙을 옹위하여야 한다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친필이 새겨져 있다.

언제나 우리 당과 운명을 함께 하며 당중앙을 옹위하는 길에서

### 당사상전선의 전초병

지난 세기 1990년대 조선중앙통신사집단의 신념의 편지를 받아보시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력사적인 친필서한을 보내주시였다.

위대한 주체사상의 선전자들이며 당사상전선의 전초병들이 중앙통신사동지들이 당을 따라 영원히 한길을 걷겠다는 굳은 결의에 대하여 당중앙은 만족스럽게 평가한다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친필서한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고있다.

### 조선의 기상을 자랑스럽게, 땀 흘려서

방송혁명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른 력사의 그날로부터 흘러온 지난 40년간은 백두산위인들께서 우리의 방송을 명실공히 주체조선의 기상을 온 세상에 떨치는 위력한 사상적무기로 강화발전시켜주시신 것 못할 날이없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 나날 사회주의조선의 기상을 자랑스럽게, 땀 흘려서, 힘차게 애당에 소리높이 울려라지켜 하라는 믿음어린 친필서한을 보내주시였다.

본사기자 김인선

### 이른새벽 문필가들을 찾으시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혁명은 사상의 힘으로 전진하며 사상의 위력은 붓대의 힘에 담보됩니다. 인민대중을 사상적으로 각성시키고 영웅적투쟁으로 고무추동하기 위하여서는 붓대를 중시하고 그 역할을 높여야 합니다.》

주제 54 (1965)년 4월 어느날 새벽이었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날이 새는줄도 모르고 정력적으로 창작투쟁을 벌이고있는 문필가들을 찾으시였다. 사람들이 아직도 단잠에 들어있을 이른새벽 자각들의 사무실을 찾아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을 뵈옵게 된 문필가들은 몸둘바를 몰라하였다. 그러는 그들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밤을 새워 글을 쓰시라고 피관하지 않은가고 다정히 물으시였다.

자신께서 바치시는 로고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들을 격려해주시는 위대한 장군님께 문필가들은 피관하지 않고 정중히 말씀드리였다. 그러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항상 밤을 새우는데 왜 피관하지 않았는가고 하시며 그들을 정겨운 시선으로 바라보시였다.

이윽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물론 밤을 새우는데는 열한 일은 아니다, 하지만 생각해볼수록, 수령님께서 안병하시고 오늘도 빛나는 혁명활동을 벌리시였다는 소식을 들은 인민들이 얼마나 기뻐하였는가를, 날마다 새 소식을 전해주시는 인민들에게 기쁨을 주고 투쟁의 용기를 북돋아주는것보다 더 큰 보람이 어디 있겠는가고 다정히 말씀하시였다.

문필가들이 지니고있는 남다른 긍지를 다스릴 새겨보게 하는 그의 뜻깊은 말씀에 그들의 가슴은 한없는 격정으로 새차게 끓어오르였다.

이윽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문필가들에게 있어서 수령님을 떠나서는 어떤 문필 활동도 아무 의미가 없다고, 우리의 문필가들은 취체로부터 구상, 집필의 모든 활동이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에 기초하고 그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을 받아안으며 문필가들은 아버이수령님에 대한 충정이야말로 말로 문필가들의 제일생명이니 다스리도록 새겨안았다.

당의 의도대로 글을 잘 쓰는 동무들은 영웅이라고 하시며 높

이 내세워주시고 좋은 글을 쓰자면 현지에 가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리고는 물소 비행기도 띄워주신분, 색다른 식료품이 생겨도 우리 기자, 편집원들이 마음은 항일이고 그날에도 달을쳐간다.

백두의 천출명장이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령도아래 피어난 항일전의 불길같은 힘차게 울려 퍼진 붓대의 포성을 우리 인민은 영원히 잊지 못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당의 붓대중시사상은 항일혁명투쟁에 그 시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때 자기를 혁명 투쟁의 강위력한 무기!

이것은 우리 수령님께서 혁명투쟁의 전기간 견지하여오신 신념이었다.

일찌기 혁명적출판물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깊이 통찰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혁명활동의 첫 시기에 친히 《새날》 신문창간사업을 지도하시여 주체의 혁명적출판물의 본보기를 마련하시였다.

아버이수령님께서 그 때를 못 잊어하셨고 그 때 무슨 정적으로도 그 당시의 글을 다 써냈던 지금에 와서 생각하면 좀처럼 믿어지지 않는다고, 그 시절의 열기와 젊음이 그러하였는 때가 많다고 하시면서 우리는 그때 자기를 혁명 투쟁의 강위력한 무기!

《우리 당의 붓대중시사상은 항일혁명투쟁에 그 시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때 자기를 혁명 투쟁의 강위력한 무기!

### 항일의 빛나는 전통을 이어

이것이 우리 수령님께서 혁명투쟁의 전기간 견지하여오신 신념이었다.

일찌기 혁명적출판물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깊이 통찰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혁명활동의 첫 시기에 친히 《새날》 신문창간사업을 지도하시여 주체의 혁명적출판물의 본보기를 마련하시였다.

아버이수령님께서 그 때를 못 잊어하셨고 그 때 무슨 정적으로도 그 당시의 글을 다 써냈던 지금에 와서 생각하면 좀처럼 믿어지지 않는다고, 그 시절의 열기와 젊음이 그러하였는 때가 많다고 하시면서 우리는 그때 자기를 혁명 투쟁의 강위력한 무기!

《우리 당의 붓대중시사상은 항일혁명투쟁에 그 시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때 자기를 혁명 투쟁의 강위력한 무기!

이것이 우리 수령님께서 혁명투쟁의 전기간 견지하여오신 신념이었다.

일찌기 혁명적출판물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깊이 통찰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혁명활동의 첫 시기에 친히 《새날》 신문창간사업을 지도하시여 주체의 혁명적출판물의 본보기를 마련하시였다.

아버이수령님께서 그 때를 못 잊어하셨고 그 때 무슨 정적으로도 그 당시의 글을 다 써냈던 지금에 와서 생각하면 좀처럼 믿어지지 않는다고, 그 시절의 열기와 젊음이 그러하였는 때가 많다고 하시면서 우리는 그때 자기를 혁명 투쟁의 강위력한 무기!

《우리 당의 붓대중시사상은 항일혁명투쟁에 그 시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때 자기를 혁명 투쟁의 강위력한 무기!

이것이 우리 수령님께서 혁명투쟁의 전기간 견지하여오신 신념이었다.

일찌기 혁명적출판물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깊이 통찰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혁명활동의 첫 시기에 친히 《새날》 신문창간사업을 지도하시여 주체의 혁명적출판물의 본보기를 마련하시였다.

아버이수령님께서 그 때를 못 잊어하셨고 그 때 무슨 정적으로도 그 당시의 글을 다 써냈던 지금에 와서 생각하면 좀처럼 믿어지지 않는다고, 그 시절의 열기와 젊음이 그러하였는 때가 많다고 하시면서 우리는 그때 자기를 혁명 투쟁의 강위력한 무기!

《우리 당의 붓대중시사상은 항일혁명투쟁에 그 시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때 자기를 혁명 투쟁의 강위력한 무기!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에게

파페말라공화국 특명전권대사 신임장 봉정

김영남동지는 신임장을 받은 다음 대사와 담화를 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이 참가하였다.

김영남동지는 신임장을 받은 다음 대사와 담화를 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이 참가하였다.

김영남동지는 신임장을 받은 다음 대사와 담화를 하였다.

【조선중앙통신】

### 력사의 그날을 맞을 때면

의 불길로 온 당보집단이 활력에 넘쳐있던 때였다. 누구나 장군님의 믿음과 기대에 보답하는 좋은 글을 더 많이 쓰고싶은 충정의 열기가 불같았다. 로작에 담겨있는 불멸의 지침은 그대로 우리 기자, 편집원들의 앞길을 밝혀주는 등대였고 마음의 기둥이었으며 라침판이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발표하신 력사적인 로작은 우리 기자, 편집원들이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 위업수행에 이바지하는 위력한 사상적무기로 중자를 앞당겨나가자

대오로 자랑될수 있을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이다. 그 나날에 당보의 기자, 편집원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에서 밝혀주시신 과업을 받들고 당의 구상과 의도를 실현하기 위하여 충정의 열정을 불태워왔다.

위대한 장군님의 이 로작을 언제나 마음속에 안고있었기에 모를것도 없었고 가야 할 길도 명백했으며 붓대의 집중모화, 면속모화는 백발백중밖에 몰랐다.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거듭 거듭 안겨주시고 자기마찬가지로 우리들을 고난의 행군시기에 오고 남들과 똑같이 허리띠를 조여내고 수백리 휘둘러가다 마다 하지 않았으며 장군님과 사상과

뜻을 같이하는 문필가로서 우리 당의 사상전진을 굳건히 사수할수 있었다.

진정 위대한 스승의 사랑과 믿음, 세심한 지도속에 당보의 핵폭탄이나 몇백만의 식량에도 대비할수 없는 무한한 위력을 펼쳐올수 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오늘 우리 당의 사상일군들 한사람한 사람이 다 원수님이 한계 시간이나 군단무력보다 더 무서워하는 사상과 신념의 장자가 되도록 이끌어주고계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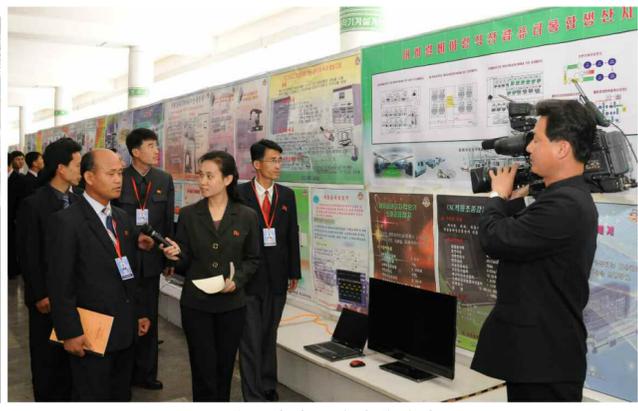
또 한번의 천출위인을 높이 모시여 력사에 류례없이 없던 보도혁명을 일으키시고 기자, 언론인들을 사회주의사상전진선에서 우리들을 수호하는 담방자들로 키워주시는 우리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은 길이길이 빛날것이다.

정 판 룡

### 광사상전선의 전초선을 역척같이 지켜갈 열의에 넘쳐있는 기자, 언론인들



—조선로동당출판사에서—



—조선중앙방송위원회에서—



—민주조선사에서— 본사기자 리명남, 김종훈 역음

# 혁명적인 사상공세로 대고조전투장들이 부글부글 끓게 하자 사상사업을 화선식으로, 전격적으로

## 각 지 당 조직들에서

사상의 위력으로 세상을 놀래우는 조선속도를 창조하며 내딛는 천만군민의 발걸음소리 강산을 진감하고있다.

각지 당조직들에서는 주제의 사상론의 가치를 높이 추켜드리고 우리 혁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끄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를 충정으로 받들어나가고도록 대중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기 위한 사상공세를 드세차게 벌이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는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당의 최고강령으로 높이 추켜들고 사상의 힘, 일심단결의 힘으로 반드시 조선혁명을 완수하여야 한다.》

각지 당조직들에서는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높이 추켜들고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고도록 하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에 큰 힘을 넣고있다.

합정당도당위원회에서는 사상의 위력을 남김없이 펼쳐나가기 위한 사업을 전격적으로, 화선식으로 벌여나가고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우선 당의 유일적령도체제를 확고히 세우는데 당의 사상사업의 화력을 총집중하고있다.

당과 혁명대오의 사상적일색화, 이것을 당의 유일적령도체계 확립을 위한 투쟁의 총자, 핵

으로 틀어쥔 도당위원회일군들은 대중을 당의 두리에 더욱 철통같이 묶어세우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고 있다.

홍남비료련합기업소, 김덕광업련합기업소, 2.8비료련합기업소를 비롯하여 인민생활 향상에서 큰 몫을 차지하는 공장, 기업소들을 사상공세의 주된 목표로 정한 일군들은 항일유격대식으로 배낭을 메고 단 위들에 나가 우리 당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된 총정의 대오를 만들기 위한 사상전, 선전선동의 원바람을 세차게 일으켜나가고 있다.

홍남지구와 단천지구의 당조직들이 풀고있다.

2.8비료련합기업소를 비롯한 당조직들에서는 결세위원들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과 당면과제를 력사적으로, 체계적으로 학습하기 위한 사업을 심화시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있다.

각지 당조직들에서는 화선식정치사업에 고무된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대고조의 불길들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고 있다. 최근년간 비날론생산에서 최고생산실적이 기록된것을 비롯하여 합남의 전두장마디에서 창조된 기적과 혁신의 성과는 실로 크다.

강원도당위원회 일군들은 당 초급선일군들의 역할을 최대

로 높이며 사상교양사업을 전격적으로 힘있게 진행하고있다.

도당위원회는 선동원들과의 사업을 중시하고 그들의 역할을 높여 대고조전군을 다그쳐나가게 하는데 특별히 큰 힘을 넣고 있다.

도당위원회 과장 이상 일군들은 직접 선동원들을 담당하고 잘 이끌어주고 있다. 그들은 백두산전세제위원들의 빛나는 업적이 수록된 혁명도서와 위대선전자료를 그리고 율령중독시메가본을 비롯하여 선동사업에 필요한 조건도 잘 마련 해주면서 선동원들을 적극 고무해주고 있다.

통천, 원산, 안변, 문천을 비롯한 도안의 시, 군당위원회일군들도 선동원들과의 사업에서 모범을 보이고있다.

당일군들의 정치사업에 고무된 도안의 선동원들은 우리 당의 혁명사상의 힘, 대중의 무궁무진한 정신의 힘을 백배처럼 분출시켜나가고도록 하기 위한 선동활동을 활기있게 벌이며 대고조전투장들을 부글부글 끓여내지 않고있다.

광양도당위원회에서는 모든 일군들이 화선식정치사업에 힘있게 참여하고 있다. 혁명전투교양을 실속있게 진행해나가고도 하고있다.

도당위원회일군들은 혁명의 준엄한 내외기마다해서 대고조실현으로 우리 당을 결사옹위한 락연의 로동계급의 투쟁정신을 깊이 새겨주는데 모범을 보이고 있다.

평안북도당위원회에서는 당과 혁명대오의 사상적일색화를 위한 사업을 실천투쟁과 밀접히 결부하여 실속있게 진행하고 있다.

도당위원회일군들은 혁명의 준엄한 내외기마다해서 대고조실현으로 우리 당을 결사옹위한 락연의 로동계급의 투쟁정신을 깊이 새겨주는데 모범을 보이고 있다.

동부의 일군들은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혁명사상, 혁명전투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전격적으로 벌이고있다. 지난 3월에 있는 조선인민군련합부대 지휘관들의 백두산지구 혁명전투지대사행군소식을 통하여 경애하는 원수님의 승고한 뜻을 다시금 심장에 새긴 당일군들이다.

전군에 혁명전투교양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조선혁명을 끝까지 완수하기 위하여 조선인민군련합부대 지휘관들의 백두산지구 혁명전투지대사행군을 조직하였다고 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의 깊은 뜻을 새기려는 당일군들은 해산시, 삼지연군, 대흥단군을 비롯한 주요 시, 군뿐 아니라 하능아래 적 동토로 불리우는 심심산골에도 빠짐없이 찾아가 혁명전투교양을 진행하여 성과를 거두고있다.

평안북도당위원회에서는 당과 혁명대오의 사상적일색화를 위한 사업을 실천투쟁과 밀접히 결부하여 실속있게 진행하고 있다.

도당위원회일군들은 혁명의 준엄한 내외기마다해서 대고조실현으로 우리 당을 결사옹위한 락연의 로동계급의 투쟁정신을 깊이 새겨주는데 모범을 보이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창조와 혁신의 가장 큰 예비, 기적창조의 근본열쇠는 천만군민의 정신력을 발동시키는데 있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력사적인 율령신년사에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달성을 위하여 신의주기관차대의 정진력을 발동시키는데 있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력사적인 율령신년사에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달성을 위하여 신의주기관차대의 정진력을 발동시키는데 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창조와 혁신의 가장 큰 예비, 기적창조의 근본열쇠는 천만군민의 정신력을 발동시키는데 있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력사적인 율령신년사에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달성을 위하여 신의주기관차대의 정진력을 발동시키는데 있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력사적인 율령신년사에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달성을 위하여 신의주기관차대의 정진력을 발동시키는데 있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력사적인 율령신년사에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달성을 위하여 신의주기관차대의 정진력을 발동시키는데 있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력사적인 율령신년사에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달성을 위하여 신의주기관차대의 정진력을 발동시키는데 있습니다.》

## 항일유격대나 팔수

◊ 항일유격대나 팔수, 이것은 오늘의 격동적인 시대에 당사상선전의 제 1선에 선 참된 당선일군들의 값있는 대명사이다.

《당일군들이 직접 약기를 메고 들끓는 현장에 나와 노레도 부르고 선동연설도 하면서 고무해주시 힘이 솟습니다.》

당선일군경제선동대의 활동에 고무되어 하루 강병이십기회를 150%이상 수행한 와우도구역 대대남조선혁명동맹농장 3작업반 초급일군의 격동된 목소리이다.

와우도구역당위원회 선전선동부 일군들만이 아니다. 당선일군들이 항일유격대나팔수가 될데 대한 당의 의도를 높이 받들고 남포시당위원회 선전선동부 일군들은 대고조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는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에 달려나가 선동활동을 힘있게 벌였다. 락양구역당위원회, 함주군당위원회 선전선동부 일군들도 경제선동대를 뜻고 불철용농전투로 들끓는 협동농장에서 맹렬한 선동활동으로 농장원대중의 정신력을 남김없이 발동시켰다.

대고조전군을 뛰노는 항일유격대나팔수! 그것은 주제의 사상론을 위력한 무기로 틀어쥐고 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오려는 우리 당선일군들의 비상한 신념과 의지의 분출이다.

◊ 당선일군들이 항일유격대나팔수로 살며 투쟁하는것은 시대의 혁명의 요구이며 조선노동당초급일군으로 비상히 양양된 격동적인 현실의 요구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 당사상일군들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에서 당의 목소리와 우렁찬 혁명가요가 울리고 로동당원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가 울려오지만 그것은 당에 큰 힘으로 됩니다.》

나팔수가 되는 혁명대오, 전격의 나팔소리를 떠안 혁명의 승리를 생각할수 없다.

우리 혁명의 력사가 이것을 보여주고있다. 지난 항일부담투쟁시기 복판전쟁대오가 냉안군에 들어섰을 때 일제의 악랄한 반공선전에 넘어간 이곳 인민들은 항일유격대원들을 외면하고 맹대하

었다. 그러던 냉안파인민들의 심장을 울리고 혁명화면 마을을 급속히 놀이게 한것은 어버이수령님의 발기에 따라 조직된 하모니카중주단의 활동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제간 그대를 회고하시며 하루전에 정치공작조가 들어갔다기 싫패하고 돌아온 마을에 가서 하모니카중주단이 이처럼 놀라운 실적을 올릴수 있었는것은 전적으로 그들이 진행한 선전선동사업의 통속성과 진실성에 있었다고 교시하시었다.

항일유격대나팔수라는 조국해방의 만세소리, 전승의 추모성으로 이어졌으며년대와 년대를 이어 백백백송의 메아리로 울려오았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승고한 뜻을 받들고 얼마전 백두산지구 혁명전투지대사행군을 마치는길로 광강도의 인민속에서 들어가 농장원들과 눈발구로 거름터미도 함께 나르고 군민연환모임에서 춤추고 노래도 부르면서 항일유격대사군중정치사업에 힘있게 벌인 조선인민군련합부대 지휘관들, 대중의 정신력을 최대로 폭발시킨 그들의 정치사업의 위력은 항일유격대나팔수가 될데 대한 사상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웅변하여 실증하고있다.

◊ 우리 당선일군들은 강성국가건설을 힘있게 추동하는 항일유격대나팔수, 위대한 김정은시대를 빛내이는 선봉투사가 되어야 한다.

당선일군들은 승고한 인민관을 지니고 대중과 한치의 간격도 없이 고크를 같이하며 선동이냐 강연을 한번 하여도 대중의 심금을 울리게 하여야 한다. 대중을 조선속도창조에도 불려넣어주는 사상공세의 모토를 열고 집중포화, 연속포화, 명중포화로 조국전쟁의 새 기지를 창조해나가야 한다. 항일유격대배낭을 메고 언제나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의 정신력을 분출시키는 실존성있는 선전선동방법을 부단히 탐구하고 활용하여 우리 당의 사상공세로선전의 생활력을 한방에 떨쳐야 한다.

모든 당선일군들은 오늘의 총진군에서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심장을 불태우며 천만대중을 최후승리로 부르는 항일유격대나팔수로서의 영예를 남김없이 과시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창조와 혁신의 가장 큰 예비, 기적창조의 근본열쇠는 천만군민의 정신력을 발동시키는데 있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력사적인 율령신년사에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달성을 위하여 신의주기관차대의 정진력을 발동시키는데 있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력사적인 율령신년사에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달성을 위하여 신의주기관차대의 정진력을 발동시키는데 있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력사적인 율령신년사에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달성을 위하여 신의주기관차대의 정진력을 발동시키는데 있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력사적인 율령신년사에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달성을 위하여 신의주기관차대의 정진력을 발동시키는데 있습니다.》

# 오늘도 울리는 혁명의 북소리

승리자의 추억보다 값진것은 없다.

사상전의 위력, 선전선동의 위력이 한결같이 력사적인 5월 7일로락이 발표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나날들을 궁지높이 들어켜보는 선군조선의 언론인들에게는 가슴속에 비취마냥 굳건히 틀어앉은 전기가 있다.

당적출판보도물이 대중의 선전자, 교양자, 조직자, 동원자로서의 전투적위력을 감당하여 발휘하면서 당과 혁명의 전두에 절세의 위인을 높이 모셔야 한다 는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우리의 출판보도물은 1970년대 사설혁명을 일으키기 위한 선군조선의 심장을 격동시키고 21세기 혁명의 북소리가 높이 울리게 하는 힘있고 동원적인 글들이 많이 나가야 합니다.》

한방울의 물방울에 우주가 비친다는 말과 같이 《혁명의 북소리》라는 표현은 당보 사설혁명을 통하여 온 사회에 약동하는 생기와 활력을 부여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의 비범성을 천백배의 말보다 더 생동하게 보여주고있다.

《혁명의 북소리》! 새길수록 뜻이 깊은 그 표현과 더불어 화선식정치사업 필자들만이 아니라 언론선전사로서도 일어섰고 대건설장들마다에서 속도전적 불바람이 세차게 휘몰아쳤다.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창조와 변혁의 서사시가 감동같이 엮여졌다.

격동의 1970년대에 강산을 진감하던 혁명의 북소리는 대를 이어 주체언론의 거장, 화제의 위인을 높이 모신 끝없는 영광과 행운으로 하여 주체혁명의 새로운 력사적전화가 펼쳐진 오늘 이 땅우에 더욱 힘차게 울려 퍼지고있다.

—창조와 혁신의 가장 큰 예비, 기적창조의 근본열쇠는 천만군민의 정신력을 발동시키는데 있습니다. —

비, 기적창조의 근본열쇠는 천만군민의 정신력을 발동시키는 데 있습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정신력을 폭발시키기 위한 사상전, 선전선동의 원바람을 일으키자. —

—혁명적인 사상공세로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자. —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올해 신년사와 조선로동당 제 8차 당사상일군대회에서 하신 연설에서 밝히신 그 승고한 뜻을 구현하시기에 제국주의적들과 온갖 반동들을 공포와 전멸에 떨게 하고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는 무한대의 힘과 용기를 안겨주는 혁명의 북소리의 위력은 더욱 높이 떨쳐지고있다.

그렇다. 당보 《로동신문》을 비롯한 우리 당출판보도물들을 통하여 더욱 힘차게 울려 퍼지는 혁명의 북소리는 천만군민을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로 부르는 백두산대국의 총진격의 포성이다.

본사기자 리정수

려져오르는 청춘조국의 환희의 메아리며 세대를 이어 북돋는 총대처럼 역세대를 뛰어넘어 혁명의 수뇌부결사옹위정신을 높이 발휘해가는 주체조선의 언론인들의 억척불변의 신념과 의지가 맥박치는 영원한 승리의 전군가이다.

1970년대에 사설혁명의 불길을 지펴올린 언론인들의 총성의 파를 그대로 이어받은 오늘의 새 세대 언론인들이 사상선전의 전초선을 굳건히 지키시기에 제국주의적들과 온갖 반동들을 공포와 전멸에 떨게 하고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는 무한대의 힘과 용기를 안겨주는 혁명의 북소리의 위력은 더욱 높이 떨쳐지고있다.

그렇다. 당보 《로동신문》을 비롯한 우리 당출판보도물들을 통하여 더욱 힘차게 울려 퍼지는 혁명의 북소리는 천만군민을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로 부르는 백두산대국의 총진격의 포성이다.

본사기자 리정수

# 대중의 정신력발동을 기적창조의 근본열쇠로 신의주기관차대 초급당위원회 사업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창조와 혁신의 가장 큰 예비, 기적창조의 근본열쇠는 천만군민의 정신력을 발동시키는데 있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력사적인 율령신년사에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달성을 위하여 신의주기관차대의 정진력을 발동시키는데 있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력사적인 율령신년사에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달성을 위하여 신의주기관차대의 정진력을 발동시키는데 있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력사적인 율령신년사에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달성을 위하여 신의주기관차대의 정진력을 발동시키는데 있습니다.》

군들과 선동원들의 정치사업은 대중의 신념을 고무하였다.

대중의 열기가 불꽃처럼 속여 수송실적이 올라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기관차의 수리정비사업이 그에 미처 따라지지 못하였다.

초급당위원회는 기관차의 수리정비사업에 정치사업의 화력을 집중하도록 하였다.

초급당위에서 백영전투부와 대장 홍성일, 참모장 김지욱동무들을 주축으로, 소대장 윤운은동무를 비롯한 수리정비대원들은 기관차의 수리정비를 제때에 보장하자면 대담하게 기술을 혁신하여 그 수리정비시간을 단축할수 있다고 결심하였다. 그들은 운행중에 있을수 있는 자그마한 사고도 미리막기 위한 대책을 세우는데 관심을 돌리면서 모든 기관차들과 기관조사들의 기술실수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고 있었다.

기술혁신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푸는데 모든 지혜와 정열을 쏟아부었다.

고심하던 노력끝에 선반공 김영명동무는 나사공작기를 창안 도입하여 기관차의 수리정비시간을 단축할수 있게 하였다.

한편 수리공들인 로영식동무와 황광성동무들도 보조발정기의 앞뒤볼베추수리와 동축베어링내환체에 새로운 도구들을 받아들여 기관차수리정비시간을 훨씬 줄여냈다.

기술혁신운동에서 대중의 정신력이 높이 발휘되는 속에 기관차의 수리정비에서는 전례없는 혁신이 일어났고 수송실적은 더 높히 떨어졌다.

하지만 초급당위원회일군들은 성과에 만족을 몰랐다. 그들은 운행중에 있을수 있는 자그마한 사고도 미리막기 위한 대책을 세우는데 관심을 돌리면서 모든 기관차들과 기관조사들의 기술실수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고 있었다.

본사기자 리정수

중국의 한 고리자 기관조사 김정철동무가 발기한 기관차정기회로다매체전물들을 빨리 완성하도록 적극 떠밀어주어 빠른 기간에 만들도록 한것이었다. 이 편집물은 완성되자마자 모든 기관차, 기관조사들이 운행중에 정기회로에 대한 교양을 제때에 알고 퇴직할수 있게 하는데서 커다란 은을 내게 되었다.

마침내 기관차대에서는 올해 1.4분기 집나리계획을 1.6배이상 넘쳐 수행하였으며 2.기세로 4월 집나리계획을 2.4배이상으로 넘치게 넘쳐 수행하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이것은 대중의 정신력을 발동하는 방법으로 무뎠던 난관을 맞아어려움과난간 초급당위원회의 사업이 낳은 귀중한 열매였으며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를 대고 조실현으로 받들려는 이곳 일군들과 수송선사들의 뜨거운 마음이 안어은 높은 실적이였다.

본사기자 리정수

본사기자 리정수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우리 당출판보도물은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에 이바지하는 위력한 사상적무기이다》 발표 40돐 기념보고회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우리 당출판보도물은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에 이바지하는 위력한 사상적무기이다》 발표 40돐 기념보고회가 6일 문화예술회관에서 진행되었다.

보고회장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정일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모셔져있었다.

보고회에는 김기남동지와 성, 중앙기관 일군들, 출판보도부 일군들과 기자, 언론인들이 참가하였다.

《김정일장군의 노래》 주악으로 보고회는 시작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김기남동지가 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전당, 전군, 전민이 혁명적인 사상공세로 선군조선의 새로운 변혁기를 열어나가고 있는 벅찬 환경속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우리 당출판보도물은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에 이바지하는 위력한 사상적무기이다》 발표 40돐을 뜻깊게 맞이하고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은 사의 김일성주의화를 위한 새로운 전군이 개시된 격동적인 시기인 주제63(1974)년 5월 7일에 고전적로작을 발표하신것은 우리 당출판보도물력사에 특기할 사변이었다고 강조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로작에서 김일성주의 출판보도물의 성격과 사명, 활동원칙과 임무, 그 수행방향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심으로써 위대한 김일성주의의 령도미에 창시되고 발전봉화되어온 주체적인 출판보도사상

과 리론을 전일적으로 종합체계화하였다고 말하였다.

우리 당출판보도물은 수령의 사상과 사업철칙에 부합하는 가장 혁명적이고 전투적인 사상적무기로 강화발전시키는데서 나서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에 과학적인 해명을 준 불멸의 총서라는데 이 로작이 가지는 거대한 의의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보고자는 위대한 장군님의 로작이 발표된 때로부터 지난 40년간은 당과 수령의 령도미에 로작의 사상리론들이 빛나게 구현되어 우리 당출판보도물의 면모가 일신되고 그 전투적위력이 힘있게 떨쳐진 성스러운 날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혁명과 건설에서 언제나 북대 와 마이크를 중시하신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천체적인 예지와 세련된 령도로 주체적출판보도물건설의 일대 전성기를 펼쳐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1970년대에 당보에서부터 사설혁명을 일으키도록 하시고 통신, 방송, 출판물 비롯한 모든 부문에서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하기 위한 언론공세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게 하시었다.

우리 혁명앞에 최약의 시련이 닥쳐왔던 1990년대에도 조선중앙통신사 5국 2세포를 비롯한 여러 출판보도기관들에 믿음 어린 친필서한을 보내시어 우리 기자, 언론인들이 영원히 당과 생사유명을 같이해나가고도록 신심과 용기를 북돋아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사회주의 조국수호를 위한 선군혁명의 강행군에서 출판보도사업의 강화발전예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두리시며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그 형식과 방법을 혁신해나가고를 특기하시었다.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100돐을 향한 총동원의 전열에 기자, 언론인들을 내세워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신문과 통신, 방송, 출판의 위력이 최대로 발휘되도록 온갖 조치를 다 취해주시었다.

보고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계승발전되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영원히 높이 받들어 모시고 대원수님들의 혁명사상과 업적을 깊이 빛내어주시었다. 김일성-김정일주의출판보도물의 근본사명으로 내세워주시었으며 우리 당출판보도물의 혁명적정격과 정통을 굳건히 계승해나갈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해주시었다.

모든 출판보도물들을 새것이 나게, 참신하게 하며 출판보도사업에서 과학성과 진실성, 통속성을 보장할데 대한 문제 등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밝혀주신 언론활동원칙과 방법론들은 모든 기자, 언론인들의 창작적열정을 최대로 분출시킨 고귀한 지침으로 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8차 당사상일군대회에서 《혁명적인 사상공세로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자》라는 력사적인 연설을 하신것은 현시기 당사상사업부문에 나선 승대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출판보도선전에서 근본적인 전환의 계기를 열어놓은 특기할 사변으로 된다.

보고자는 우리 당출판보도물은 김일성-김정일주의, 인민대중출판보도물로 더욱 강화발전되고 천만군민을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도 힘있게 불려오게 하는 위력한 사상적무기로 위용될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온 나라 기자, 언론인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승고한 경의를 드리면서 주제의 사상론의 가치높이 사회주의언론건설의 새로운 전성기를 펼쳐가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최대의 영광과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렸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전당과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로 일색화하는 사업에서 기수는 사상일군들입니다.》

보고자는 기자, 언론인들이 최후승리의 전격로를 앞장서 열어나가는 항일유격대나팔수가 되어 사상의 포성, 출판보도의 포성을 높이 울려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독창적인 출판보도사상과 리론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며 우리 당의 주체적출판보도물건설의 자랑스러운 전통과 업적을 100% 계승하고 끝없이 빛내어나가야 한다.

전당과 온 사회에 경애하는 원수님의 유일적령도체제를 확고히 세우는데 출판보도선전의 화력을 총집중하며 원수님의 령도의 현명성, 불멸의 업적에 대한 선전을 강화하여야 한다.

기자, 언론인들은 사회주의호전을 힘있게 추동하기 위한 사상전의 원바람을 일으켜 전제인민이 사회주의의 신념으로, 생명으로 간직하고 사회주의와 끝까지 운명을 같이해나가고도록 하여야 한다.

군민대단결의 위력을 높이 발양시키며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 시 집단적혁신과 자력경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새로운 조속도를 창조하기 위한 투쟁에 대중을 불려오는데는 보도전, 선전전을 박력있게 벌여야 한다.

제국주의반동세력을 사상적으로 타도하기 위한 일대 사상공세와 대적연전, 전라전을 진공

적으로 벌여 우리 군대와 인민들에게 필수의 신심을 안겨주고 적들의 기를 꺾어놓는 사상의 미싸일들을 더 많이 만들어야 한다.

온 사회를 당의 붉은 사상으로 일색화하기 위한 출판보도선전을 주축적으로, 핵략적으로 일관성있게 벌이며 집중포화, 연속포화, 명중포화를 틀어대어 온갖 반동들을 썩고 통속화하여, 생명을 위협하는 사변을 막아내야 한다.

기자, 언론인들은 백두밀림에서 혁명적출판활동의 본보기를 창조한 항일의 출판일군들과 전 사회의 불길속을 헤쳐온 1950년대 중군기자들처럼, 혁명의

본사기자 리정수



【조선중앙통신】





# 선군혁명과 더불어 이어지는 승리의 역사

# 군사적패권을 쥐려는 어리석은 망상

영웅적조선인민군창건 82돐에 즈음하여 뿔스까인민군 전 통령회에서 경축집회가, 나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와 베인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소에서는 강연회가, 기네공화국 해군연합합대사령부와 나이제리아 카오스국립대학에서는 영화상회가 4월 23일부터 25일까지의 기간에 진행되었다.

집회 장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모자상을 비롯한 우리 나라 도처들이 전시되어있었다.

뿔스까인민군 전 통령회 위원장은 우리 혁명무력의 창건과 강화발전에 쌓인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였다.

그는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세 계를 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명도성에 대해 언급하고 또 한분의 위인을 높이 모신 조선인민군 강성국가건설과 조국통일위업수행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둘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나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 연구 전국위원회 위원장은 조선의 자주권과 사회주의, 지역 평화와 안전이 믿음직하게 수호되고있는것을 통하여 세계는 반체제에서 편견편승하는 조선인민군의 위력을 실감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혁명의 기둥, 주력군으로 위용떨치는 조선인민군 나라의 정치사상지적 배양으로 다지는 데 기여하고있을뿐 아니라 강성국가건설에서 큰 몫을 하고 있는것을 높이 평가하였다. 또한 우리 군대와 인민이 강성국가건설에서 이룩하고있는 자랑찬 성과를 소개하는 도서, 사진들이 전시되어있었다.

총회에서는 지난해 주체사상연구부서사업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을 총화하고 올해 활동방향을 토의하였으며 전국위원회 지

연구소 조 책임자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혁명명도성에 배승만을 펼쳐온 우리 혁명무력의 영광의 로정을 찬양하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진두에 모시였기에 조선인민군의 승리의 역사는 선군혁명과 더불어 풀었다 이어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기네공화국 해군연합합대 사령관은 인민군대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의 강행군길을 이어간 김일성동지,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영상이 깃든 강령을 받았고, 조선인민군 군인들이 최고사령관의 명령지시를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우는것은 너무도 응당하다고 말하였다.

기네공화국 해군연합합대 대령령위함 함장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조선인민혁명군을 창건하시고 간고한 항일무장투쟁을 조직명도하시어 나라의 해방을 이룩하셨다. 해방후 정규무력으로 강화발전된 조선인민군은 미제가 도발한 조선전쟁에서 나라의 자주권을 영예롭게 수호하였다. 김일성동지의 선군정치하에 조선인민군은 사회주의호전과 강성국가건설에서 위용을 떨쳐왔다.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명도는 오늘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 김정은원수각하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되고있다.

영웅적조선인민군 창건 82돐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 출판보도물이 특집하였다.

웨일신문 《앤디언년전》 4월 25일부는 배우산학명강군의 불패의 위용을 보여주는 사진과 함께 《조선인민군과 선군혁명》이라는 제목의 글을 편집하였다. 신문은 김일성주석께서 창건하신 조선인민군은 승리와 영

광만을 펼쳐왔다고 지적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신군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드시고 군력강화에 최우선적인 힘을 넣으셨다. 인드네시아신문 《우아라 까르야》는 4월 22일 《선군혁명과 더불어 빛나는 80여성상》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위대한 선군혁명정들을 높이 모신 우리의 혁명무력이 미일 두 제국주의를 타승하였으며 전후 미래의 거둬들이는 전쟁도발행동을 무자비하게 짓부셔버리고 나라의 안전과 혁명의 전취물을 굳건히 수호하였는데 대하여 상세히 서술하였다. 신문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미국이 끊임없이 강행하는 침략전쟁연속동속에서도 조선의 자주권과 사회주의, 지역 평화와 안전이 믿음직하게 수호되고있는것을 통하여 국제사회의 위대한 현열체제의 중심으로서의 거룩한 공로를 보여주는 참으로 감동깊은 화폭이었다.

이날 장병들이 이장장으로 러친 《김정은 걸사옹이》의 구호는 결코 이 사단에서만 울려나온 웨이지 아니하다.

전체 조선인민군 장병들은 김정은 최고사령관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쳐 김일성주석께서 개척하시고 김정일명도자께서 계승해오신 주체의 사회주의의 선군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수해나갈 신념과 의지에 넘쳐있었다.

사회주의조선은 신군의 위력을 만반에 떨치며 언제나 나라만을 이룩해나갈것이다.

한편 4월 22일 오스트리아에서 열린 주체의 인민공화국관계 축전행위인내트레페지드우리의 혁명무력이 접어는 승리와 영광의 자랑찬 로정을 소개하는 글을 올렸다.

【조선중앙통신】

나이제리아신문 《나이제리언 오브저버》 4월 22일부는 《근위사단과 김정은최고사령관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조선인민군 군위 서울류경주제105방포사단에 깃들어있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명도업적과 사단의 장병들이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이룩한 빛나는 위용을 상세히 서술하였다.

신문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2012년 1월 1일 이 부대를 찾으신여 전후 동원태세를 로해하고 군인들에게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신데 대하여 전하고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사단의 장병들과 기념촬영을 하실 때 지휘관들의 손을 잡아 자신의 곁에 더 가까이 세워주시고 그들의 다정히 귀속말도 하시는 김정은 동지의 모습은 한없이 자애로운 어머니, 조선의 위대한 현열체제의 중심으로서의 거룩한 공로를 보여주는 참으로 감동깊은 화폭이었다.

이날 장병들이 이장장으로 러친 《김정은 걸사옹이》의 구호는 결코 이 사단에서만 울려나온 웨이지 아니하다.

전체 조선인민군 장병들은 김정은 최고사령관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쳐 김일성주석께서 개척하시고 김정일명도자께서 계승해오신 주체의 사회주의의 선군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수해나갈 신념과 의지에 넘쳐있었다.

사회주의조선은 신군의 위력을 만반에 떨치며 언제나 나라만을 이룩해나갈것이다.

한편 4월 22일 오스트리아에서 열린 주체의 인민공화국관계 축전행위인내트레페지드우리의 혁명무력이 접어는 승리와 영광의 자랑찬 로정을 소개하는 글을 올렸다.

【조선중앙통신】

이란이슬람혁명지도자 세예드 알리 카메나이가 4월 30일 한 집회에서 연설하면서 지역혁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는 이란인민이 모든 분야에서 자체의 힘에 의거하여 발전을 이룩해나갈 때 혁명들은 이란에 대한 태도를 바꾸어줄 것이라고 말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미국이 끊임없이 강행하는 침략전쟁연속동속에서도 조선의 자주권과 사회주의, 지역 평화와 안전이 믿음직하게 수호되고있는것을 통하여 국제사회의 위대한 현열체제의 중심으로서의 거룩한 공로를 보여주는 참으로 감동깊은 화폭이었다.

이날 장병들이 이장장으로 러친 《김정은 걸사옹이》의 구호는 결코 이 사단에서만 울려나온 웨이지 아니하다.

전체 조선인민군 장병들은 김정은 최고사령관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쳐 김일성주석께서 개척하시고 김정일명도자께서 계승해오신 주체의 사회주의의 선군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수해나갈 신념과 의지에 넘쳐있었다.

사회주의조선은 신군의 위력을 만반에 떨치며 언제나 나라만을 이룩해나갈것이다.

한편 4월 22일 오스트리아에서 열린 주체의 인민공화국관계 축전행위인내트레페지드우리의 혁명무력이 접어는 승리와 영광의 자랑찬 로정을 소개하는 글을 올렸다.

【조선중앙통신】

미국이 끊임없이 강행하는 침략전쟁연속동속에서도 조선의 자주권과 사회주의, 지역 평화와 안전이 믿음직하게 수호되고있는것을 통하여 국제사회의 위대한 현열체제의 중심으로서의 거룩한 공로를 보여주는 참으로 감동깊은 화폭이었다.

이날 장병들이 이장장으로 러친 《김정은 걸사옹이》의 구호는 결코 이 사단에서만 울려나온 웨이지 아니하다.

전체 조선인민군 장병들은 김정은 최고사령관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쳐 김일성주석께서 개척하시고 김정일명도자께서 계승해오신 주체의 사회주의의 선군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수해나갈 신념과 의지에 넘쳐있었다.

사회주의조선은 신군의 위력을 만반에 떨치며 언제나 나라만을 이룩해나갈것이다.

한편 4월 22일 오스트리아에서 열린 주체의 인민공화국관계 축전행위인내트레페지드우리의 혁명무력이 접어는 승리와 영광의 자랑찬 로정을 소개하는 글을 올렸다.

【조선중앙통신】

미국이 끊임없이 강행하는 침략전쟁연속동속에서도 조선의 자주권과 사회주의, 지역 평화와 안전이 믿음직하게 수호되고있는것을 통하여 국제사회의 위대한 현열체제의 중심으로서의 거룩한 공로를 보여주는 참으로 감동깊은 화폭이었다.

이날 장병들이 이장장으로 러친 《김정은 걸사옹이》의 구호는 결코 이 사단에서만 울려나온 웨이지 아니하다.

전체 조선인민군 장병들은 김정은 최고사령관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쳐 김일성주석께서 개척하시고 김정일명도자께서 계승해오신 주체의 사회주의의 선군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수해나갈 신념과 의지에 넘쳐있었다.

사회주의조선은 신군의 위력을 만반에 떨치며 언제나 나라만을 이룩해나갈것이다.

한편 4월 22일 오스트리아에서 열린 주체의 인민공화국관계 축전행위인내트레페지드우리의 혁명무력이 접어는 승리와 영광의 자랑찬 로정을 소개하는 글을 올렸다.

【조선중앙통신】

미국이 끊임없이 강행하는 침략전쟁연속동속에서도 조선의 자주권과 사회주의, 지역 평화와 안전이 믿음직하게 수호되고있는것을 통하여 국제사회의 위대한 현열체제의 중심으로서의 거룩한 공로를 보여주는 참으로 감동깊은 화폭이었다.

이날 장병들이 이장장으로 러친 《김정은 걸사옹이》의 구호는 결코 이 사단에서만 울려나온 웨이지 아니하다.

전체 조선인민군 장병들은 김정은 최고사령관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쳐 김일성주석께서 개척하시고 김정일명도자께서 계승해오신 주체의 사회주의의 선군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수해나갈 신념과 의지에 넘쳐있었다.

사회주의조선은 신군의 위력을 만반에 떨치며 언제나 나라만을 이룩해나갈것이다.

한편 4월 22일 오스트리아에서 열린 주체의 인민공화국관계 축전행위인내트레페지드우리의 혁명무력이 접어는 승리와 영광의 자랑찬 로정을 소개하는 글을 올렸다.

【조선중앙통신】

## 주체사상연구 핀란드전국위원회

주체사상연구 핀란드전국위원회 연차총회가 4월 24일 헬싱키에서 진행되었다. 총회장소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담은 사진문헌들이 전시되어있었다. 또한 우리 군대와 인민이 강성국가건설에서 이룩하고있는 자랑찬 성과를 소개하는 도서, 사진들이 전시되어있었다.

총회에서는 지난해 주체사상연구부서사업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을 총화하고 올해 활동방향을 토의하였으며 전국위원회 지

## 핀란드전국위원회 연차총회 진행

주체사상연구 핀란드전국위원회 연차총회가 4월 24일 헬싱키에서 진행되었다. 총회장소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담은 사진문헌들이 전시되어있었다. 또한 우리 군대와 인민이 강성국가건설에서 이룩하고있는 자랑찬 성과를 소개하는 도서, 사진들이 전시되어있었다.

총회에서는 지난해 주체사상연구부서사업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을 총화하고 올해 활동방향을 토의하였으며 전국위원회 지

## 자력갱생의 중요성 강조

이란이슬람혁명지도자 세예드 알리 카메나이가 4월 30일 한 집회에서 연설하면서 지역혁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는 이란인민이 모든 분야에서 자체의 힘에 의거하여 발전을 이룩해나갈 때 혁명들은 이란에 대한 태도를 바꾸어줄 것이라고 말하였다.

【조선중앙통신】

## 사회경제발전정책 발표

알제리대통령 아부델아지즈 부테플리카가 4월 28일 서한에서 이란의 사회경제발전정책을 발표하였다. 서한은 정부가 테러와의 투쟁을 강화하며 민족화해과정을

## 외세의 내정간섭 배격

페라이대통령 미셸 올메이이 2일 한 모임에서 연설하면서 자기 나라에 대한 외세의 내정간섭을 단호히 배격하였다. 그는 다가오는 대통령선거와

## 평화적 핵 권리 지지

니카라과의 부총리 썬드 로페스가 4월 28일 이란방문과정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란의 평화적 핵 권리를 지지하는 자기 나라의 정책을 천명하였다. 그는 이란은 자기의 운명을 결정할 권리를 고수해야 한

## 일본은 특대형과거범죄를 절대로 회피할수 없다

일본반동들이 과거 일제의 침략력사를 의무하며 미화보식하기 위해 모자를 쓰고있다. 얼마전 일본반동들이 야스쿠니신사에서 무리로 몰려가 참배하는 광경을 보았다. 이번 참배에는 1989년에 가장 많은 일본의 정객들이 참가하였다. 머구어 언급한것은 그들이 저들의 야스쿠니신사참배를 정당화하며 여론화한 것이다. 참배에 참가한 일본정객들은 전 일본과 연합하여 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며 책동하는 미국을 규탄하였다. 한편 일본의 야스쿠니신사에서 지난 4월 19일 현내에서의 미군기지에서 벌어진 자살행위자들의 집회와 참배는 오기나와와 앞날이 자기들에게 달려있다는것을 당국과 미국정부에 보여주어야 한다고 하면서 미군기지의 현내시설을 용납하지 않을 방침을 밝혔다. 【조선중앙통신】

## 미국기발을 불태우는 필리핀인민들

미국기발을 불태우는 필리핀인민들

## 단편 실 패 한 거짓 말 정치

최근에 미국의 한 언론기관이 흥미있는 여론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그에 의하면 미국의 60%가 중요한 국가적문제들과 관련하여 현 집권자인 오바마가 자기들을 속이고있으며 거짓말로 시간을 보낸다고 여기고 있다. 그 실례의 하나가 바로 2012년에 리비아 미군기지주재 미국영사관에 대한 불의의 공격으로 이 나라 주재 미국대사가 죽은 사건이 발생한 후 오바마가 그에 대해 로행위라고 말한것이다. 미국인들은 그것이 거짓말이라는것이 다. 아예 그게 아니라 그 사건은 테

## 로행위가 아니라 반이슬람교적인 영보물 제작병영한 미국에 대한 일반민들의 보복행위

로행위가 아니라 반이슬람교적인 영보물 제작병영한 미국에 대한 일반민들의 보복행위라는것이 증명되었다. 현재 부총리 썬드 로페스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자는 없다. 특히 대통령을 협박하는 능수가 되어야 할뿐 아니라 거짓말정치의 기만성을 감출줄 아는 특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여러해동안 국민을 제치있고 속이고 행했지만 오바마의 거짓말정치는 끝내 등장하는 일로써 더욱 흉흉하게 되고있고있는 현실을 직접 목격하였다고 하면서 그는 주체사상의

## 이탈리아에서 반이슬람교적인 영보물 제작병영한 미국에 대한 일반민들의 보복행위

이탈리아에서 반이슬람교적인 영보물 제작병영한 미국에 대한 일반민들의 보복행위라는것이 증명되었다. 현재 부총리 썬드 로페스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자는 없다. 특히 대통령을 협박하는 능수가 되어야 할뿐 아니라 거짓말정치의 기만성을 감출줄 아는 특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여러해동안 국민을 제치있고 속이고 행했지만 오바마의 거짓말정치는 끝내 등장하는 일로써 더욱 흉흉하게 되고있고있는 현실을 직접 목격하였다고 하면서 그는 주체사상의

## 미국기발을 불태우는 필리핀인민들

미국기발을 불태우는 필리핀인민들

## 규탄 배격 받는 미국

세계 각국의 국제문제 전문가들이 최근 쿠바의 아바나에서 진행된 한 회의에서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지역에 대한 미국의 지배주의책동을 폭로하였다. 그들은 미국이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지역에서 반마약투쟁에 대해 떠드는것은 이 지역에 대한 군사적주둔을 확대하고 자기 나라에 추종하지 않는 나라들을 전복하려는 그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쿠바의 무성이 1일 성명을 발표하여 자기 나라에 대한 미국의 적대행위를 강력히 규탄하였다. 최근 미국정부가 쿠바를 《테러리스트국가》로 명명하여 성명은 쿠바가 테러리스트라는 은신처로 된적이 없으며 자기 나라에 대한 테러행위를 비호조장시키는 나라는 바로 미국이라고 단죄하였다.

성명은 일방적으로 현실과 맞지 않게 작성된 그러한 명단에서 쿠바를 당장 삭제할것을 미국에 요구하였다.

이민외무성 대변인이 지난 4월 19일 이르나통신과의 회견에서 자기 나라의 해외자산단체 소유물을 매각하기로 한 미시반당국의 그릇된 판결을 배격하였다. 그는 최근 미연방재판소가 뉴욕에 있는 이민의 자선단체와

## 미국기발을 불태우는 필리핀인민들

미국기발을 불태우는 필리핀인민들

## 미국기발을 불태우는 필리핀인민들

미국기발을 불태우는 필리핀인민들